

협회 단기강좌 수강생 RI취급자일반면허시험 수석 합격

올해 제2006-1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시험 최종합격자가 2006년 4월 20일(목) 과학기술부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었다.

이번 시험에는 총 1,938명이 응시하여 217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한편 우리협회 동위원소교육연구원에서 실시한 면

허시험 대비 단기강좌 특강 수강자 중에는 70여명이 합격하였으며, 그 중 김봉근(대구보건대학 방사선과) 수강생이 수석 합격을 차지하였다.

아울러, 이번 수석 합격생을 배출한 대구보건대학은 총 30명이 합격함으로써 이번 면허시험 응시기관 중 합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관기관 동정

과학기술부

제 39회 과학의 달 기념, 원자력체험전 개최



한국형 우주식품부터 수중 로봇, 원자력 수소 자동차까지 세계 6위권의 원자력발전 국가인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2006 원자력체험전」이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제39회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장관 김우식)가 주최하고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4월 20일 오전 11시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 등 과학기술계, 학계, 정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

막식을 갖었다.

이번 체험전은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국내 연구기관, 기업 등이 개발한 440여점의 연구 성과물을 전시함으로써 생명공학기술(BT)과 나노기술(NT) 환경공학 기술(ET) 정보통신기술(IT) 등 다양한 분야로 응용되고 있는 원자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미래 국가 발전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100인치 스크린을 통해 하나로(HANARO)의 활용현황과, 오는 2008년 탄생할 한국 최초의 우주인을 위해 개발 중인 우주 김치, 방사선 융합 기술로 만들어낸 고기능 화장품 및 차세대 전투식량 등을 볼 수 있었으며, 관람객이 직접 원자로 내부 결함을 탐지하는 수중 로봇을 조정해 볼 수 있는 기회와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방사선으로 살균 처리된 유아용 물티슈를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였다.

기타, 부대행사로 저명인사 초청 특별강연, 학생들을 위한 연극, 마술쇼와 온 가족 참가할 수 있는 '도전 원자력 골든벨'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는 등 각 코너마다 푸짐한 경품과 기념품이 준비되었다.

이번 체험전은 나흘간의 서울 전시를 끝낸 뒤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으로 옮겨 4월 26일~5월 10일(15일 간)까지 상설 전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행사 홈페이지(www.kaeri.re.kr/atomicshow/) 를 참조할 수 있다.

한·IAEA 원자력방호기술 향상 방안 협의 - 제3차 한·IAEA 원자력방호 기술협력회의 참가 -

과학기술부는 '06년 4월 19일~20일간 서울 위커킬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한·IAEA 원자력방호 기술협력회의에 이문기 원자력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가하여 원자력방호에 관한 협력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는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효과적인 방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03년 3월 31일 IAEA와 『한·IAEA 원자력방호협력약정』을 체결하고 '03년 4월에 제1차 및 '05년 5월에 제2차 원자력방호 기술협력회

의를 개최하여 원자력방호 평가 방법론, 핵물질의 불법거래방지, 국제방재훈련 등 분야에 대한 상호 기술협력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한·IAEA 원자력방호 기술협력의 결실인 핵심구역파악코드(VIP: Vital Area Identification Package) 전달식(한국→IAEA)을 가졌다.

한국, 원자력 안전 선진국 클럽 가입 - 회원 만장일치로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가입 결정 -

과학기술부는 한국이 원자력 안전 선진국들의 모임인 국제 원자력 규제자 협의회(International Nuclear Regulators Association, INRA)에 정식으로 가입되었다고 4월 6일(목) 밝혔다.

이와 관련 INRA 의장인 프랑스의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방호 총국 국장 라코스테는 3월 15일자 서한으로 이문기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을 INRA의 정식회원으로 초청한다고 전해왔다.

1997년에 설립된 INRA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독일, 스웨덴, 스페인 등 8개 원자력 선진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책임자들의 모임으로 세계 원자력 안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등 원자력 안전 분야의 국제 여론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그동안 원자력 분야의 국제기구 협약이나 주요 국제회의의 의장을 대부분 INRA 회원들이 맡아왔으며,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OECD/NEA(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기구)의 원자력 안전 분야의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확대하는데 INRA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원자력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의 INRA가입을 환영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 수준을 세계가 인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INRA의 회원은 일정 규모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하고 원자력 안전에 관한 독립 규제 조직을 갖추고 있는 국가의 규제 책임자로 제한되어 있다. 신규 회원 가입은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될 만큼 엄격하며, INRA 회원으로 한국이 추가된 것은 INRA 설립 이래 처음이다. 한국의 가입 결정은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원자력 위상과 원자력 안전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INRA는 회원국들이 차례로 1년씩 의장국과 사무국 역할을 번갈아 맡고 있으며 의장국이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06년은 프랑스가 의장국을 맡고 있다. 회의결과는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토의도 형식적인 것보다는 솔직하고 공개적인 분위기로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향후 INRA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 원자력 안전 현안들에 대한 논의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핵 투명성 홍보를 위한 국제 교섭 채널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독일·스페인·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등 다양한 실리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 원자력 무대에서 한국의 원자력 활동 및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어 향후 한국인이 국제기구의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금년 9월 25일~9월 27일간 프랑스 아비뇽에서 개최될 '06년도 차기 INRA 정기회의에 최초로 참가하게 되며, 이 회의에서 현안 과제와 문제점 중심으로 "한국의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방호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회원국들과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원자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부공고 제2006-61호

원자력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 및 관련 기술기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월 14일
과학기술부장관

1. 개정사유

가. 원자력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검사를 현장검사 중심에서 서면심사 비중을 확대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함

나. 위탁기관이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을 규정하고, 인·허가 및 신고 서류의 축소와 전자매체 활용을 통하여 관련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법시행령 개정(안)

- 1) 정부위원회 정비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운용심의회 및 국제규제물자수출입심의회 폐지(안 제20조의15, 제20조의16, 제302조의4 삭제)
- 2)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검사에 대한 서면심사

대상 확대(안 제197조, 제199조, 제237조)

- 3) 국가원자력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탁업무 규정 및 통제교육훈련 신설(안 제303조, 제295조의2 신설)
- 4)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규정(안 제303조의2 신설)

나. 원자력법시행규칙 개정(안)

- 1)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안 제6조제4항, 제15조제4항, 제23조제5항 삭제)
- 2)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핵연료주기사업, 핵연료물질의 사용, 업무대행업 및 폐기시설 건설·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 규정(안 제7조의2, 제29조의2, 제46조의2, 제69조의2)
- 3)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표준설계 인가기준 및 유효기간을 원자력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안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삭제)
- 4) 핵연료주기시설의 정기검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함(안 제32조, 제44조)
- 5) 가공사업자 및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에 대하여 정련사업자의 기술능력에 관한 기준을 준용(안 제40조 및 제45조)
- 6) 방사성동위원소 등 서면심사 절차 마련(안 제

- 91조의2)
 - 7) 비상대응계획 대상 및 절차 신설(안 제90조의3)
 - 8) 원자력통제교육 구분 및 대상자에 따른 교육 시간 규정(안 제106조의2)
 - 9) 판독업무자에 대한 기술능력 및 기술기준 등 완화(안 제109조 및 별표 3)
 - 10)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 중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안 별표 5)
 - 11) 각종 인·허가 및 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축소하고 전자매체를 활용(안 제6조, 제11조의2, 제23조, 제29조, 제37조, 제41조)
- 다.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 1) 표준설계인가에 필요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도록 함(안 제3조)
 - 2) 표준설계인가에 필요한 원자로의 구조·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의 적용범위를 규정

- 하도록 함(안 제11조)
 - 3) 재량행위 투명화에 따른 기술기준 문구 수정(안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60조)
- 라.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 1) 기술기준의 재량행위 투명화(안 제67조제1항 제1호)
 - 2)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품질보증을 위한 기술기준 근거 마련(안 제82조)

3. 기타 참고사항

원자력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관련 기술기준 규칙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의 입법 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협회 홈페이지(www.ri.or.kr) 공지사항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산업자원부

방폐장 특별지원금 3,000억원, 내달초 경주시에 지급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지원금 3,000억원이 다음달초까지 경주시에 지급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와 특별지원금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한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5월초까지 특별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경주시는 특별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특별법

에 따라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산업자원부와 지급시기 및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왔다.

산업자원부는 4월 20일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경주시에 지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지급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주시 명의의 계좌에 특별지원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방사선안전관리협의회 원자력 현장 교육 실시



대학방사선안전관리협의회(회장 정국현)는 한국 원자력문화재단과 공동으로 2006년 4월 25일(화)~4월 26일(수) 양일간 월성 원자력발전소 및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에서 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방사선안전관리협의회 원자력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 교육에서는 대학 내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취급, 보관, 폐기 등에 관한 기술 협력 및 업무교류, 국내 원자력 산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월성 원자력발전소와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현장을 견학하였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감속재와 냉각재를 중수로 사용하고 있는 월성원자력발전소 내의 주 제어실과 터빈실,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등을 방문하여 국제적인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은 1978년 4월 고리 1호기의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현재는 고리 원전 4기, 월성 4기, 영광 6기, 울진 6기 총 20기가 가동중이며 세계 6위의 원자력 발전국으로 성장하여 세계 최고의 원자

력 발전 운영기술과 경험, 우수한 안전관리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 기술을 세계시장에 수출하고 있다고 설명 들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운영실장(지함청)으로부터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한 세계 각국의 자원 및 에너지 확보에 따른 원자력발전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서 향후 원자력 발전의 의존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의 안전한 운영, 관리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그동안 원자력발전과 방사선 안전관리를 하면서 느꼈던 에피소드 등을 청취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번 원자력 현장교육을 계기로 대학방사선안전관리협의회 회원 상호간의 기술 정보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성숙한 방사선 안전관리를 이루도록 다짐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를 정례화하여 대학 방사선안전관리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면 한다.

대학에서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분야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방사선안전관리협의회 및 각 대학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부단한 노력과 학교측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대학방사선안전관리협의회에서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학의 방사선안전관리 실무 표준(안) 자료 발간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더욱더 수준높은 대학방사선 안전관리 활동을 기대해 본다.

- 글 제공 : 강명원(전남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자)